

#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1일~12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1일~12월 31일

---

### 대내경제 138

#### <공식경제>

200일 전투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북한

#### <전력>

겨울에 가중되는 북한의 전력난

#### <농업 및 식량>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식량 값이 폭락?

여전히 식량부족국 지정되어 있는 북한

---

### 대외경제 140

#### <대북제재>

UN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를 뒷받침 하는 각국의 독자제재 및 이행 노력

#### <대외교역>

증가한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

####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 대내경제

### <공식경제>

RFA(12.17)

#### 200일 전투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북한

북한당국은 노동당 7차대회 이후 조직한 ‘200일 전투’를 12월 15일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7차대회 이전 조직한 ‘70일 전투’에 이어 곧바로 돌입한 ‘200일 전투’를 통해 북한당국은 농업부문에서 식량생산이 크게 늘었다고 자평함. 또한 함경북도 수해복구와 각 지역 산림녹화사업, 수산업과 채취공업부문의 성과가 높게 평가되었다고 함경북도의 한 『RFA』 소식통이 15일 전함.

다만, 철도, 전력, 지방산업 부문과 각 지역 살림집 건설은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전해지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손실을 막는 데 급급하다 보니 200일 전투의 성과가 인민생활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 자강도 간부 소식통의 말을 보도함. 또한 주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사회적 불만이 높고,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200일 전투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됐다고 전함.

---

### <전력>

RFA(12.14)

#### 겨울에 가중되는 북한의 전력난

겨울철이 되자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물론 북한 주민들은 1년 내내 전력난에 시달리지만, 물이 부족하고 심지어 얼기까지 하는 겨울철에는 수력발전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력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짐. 김정은 집권 후 수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등 전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전문가들은 새롭게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부실공사 및 잦은 고장 때문에 원활하게 작동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

## <농업 및 식량>

RFA(12.8), VOA(12.9)

###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식량 값이 폭락?

『RFA』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식량 값을 떨어뜨려 폐기발 농사로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다고 함. 특히 북한 북부 수해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주요 생산물인 강냉이의 가격이 kg당 8백원으로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여전히 식량부족국 지정되어 있는 북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8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시리아, 미얀마, 네팔 등과 함께 외부 지원이 필요한 39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시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톤에 이르지만, 10월까지 이중 23%에 불과한 16만 3천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함.

---

## 대외경제

### 〈대북제재〉

동아일보(12.2, 12.11), 세계일보(12.2), 중앙일보(12.2), VOA(12.3), 조선일보(12.5)

#### UN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를 뒷받침 하는 각국의 독자제재 및 이행 노력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11월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이어, 한국정부는 12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명과 노동당 등 단체 35곳을 금융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함. 정부는 이와 더불어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떠오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밝히기도 함.

한국·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일본 또한 한국과 같은 12월 2일 추가로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함.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기항시 일본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에 일본 국적의 선박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이외에도 강화방안에는 조총련 간부 등 북한 방문시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중국 또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10일 상무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밝힘. 중국 상무부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2016년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만달러 혹은 100만톤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부터는 4억 90만달러 혹은 750만톤 중 낮은 쪽으로 제한됨.

한편,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해온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계열 금융사인 오라뱅크의 평양지점을 폐쇄하기로 함.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된 이후 첫 이행 사례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재무부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또한 제재했는데, 북한의 주요 파견대상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올해 북한 노동자 비자 신규 발급이 없었다고 밝힘. 폴란드 외무부는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VOA』에 밝힘.

## <대외교역>

VOA(12.20)

### 증가한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16 세계통계핸드북'에 따르면 2015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수입액이 약 8,300만달러로 2014년 약 6,300만달러보다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억 2,000만달러였던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3년에 약 8,3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든 것에 이어 2014년에도 줄었으며, 2015년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UNCTAD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는 2015년에 전년대비 12.7%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통계핸드북'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북한은 2015년에 약 15억달러 어치의 석탄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의 38.4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남.

##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VOA(12.3, 12.13, 12.15, 12.16, 12.21, 12.22, 12.23), RFA(12.8)

아래 표는 12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아일랜드 (컨선 월드와이드)	2016년	구호물품	16만달러 상당	담요, 침구류, 상수도 시설 자재, 임시 화장실 자재, 폐기물 처리 장비 등
독일 (벨트홍게르힐페)	2016년	구호물품	8만달러 상당	함경북도 회령시 및 온성군 - 식수·위생 관련 물품 위주
영국 (세이브더칠드런)	2016년	가재도구	8만달러 상당	위생용품 및 조리 기구
스위스 정부	2016년	대북식량지원사업 지원금	807만 8천달러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모금한 2,100만달러의 38%에 해당
FAO	2016년 11월	수해 지역 내 농업 피해 복구 지원금	50만달러	11월부터 '북한 수해 지역 내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개시'
러시아	2010~2015년	지원금	2,800만달러	러시아가 이 기간동안 외국에 제공한 지원 규모 약 2억 7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천만 달러 중 대북 지원이 약 10.3% 차지
FAO	곧 사업지원 예정	산림 복구 사업 지원금	55만달러	'식량난 해소를 위한 림농복합 경영 개발 사업 지원 예정
리히텐슈타인	2016년	WFP 대북 사업 지원금	10만달러	2011년 이래 6년째 대북 지 원 중
유엔 및 각국 정부	2016년	대북지원금 총합	4,390만달러	유엔을 포함한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 총액은 4,930만여 달러이며, 이중 60%인 2,740만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음.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미국 및 캐나다)	2016년 9월	구호품 및 학용품	구호품 세트 500개 및 학용품 세트 110개	무산군과 연사군 내 수재민들 에게 전달되었으며,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통해 지원함.



## 기사 원문 리스트

- [2016.12.02] 日 독자 대북제재...입항 금지 대상에 자국선박 포함 **(동아일보)**
- [2016.12.02] 정부, 황병서, 최룡해 등 36명 금융제재, 35개 단체도 **(세계일보)**
- [2016.12.02] 정부, 조선노동당 제재...북한 외화획득원 의류 수출도 타깃 **(중앙일보)**
- [2016.12.03] 유럽 NGO, 북한 수재민에 32만 달러 상당 구호품 지원 **(VOA)**
- [2016.12.03] 폴란드, 올해 북한 노동자 비자 신규 발급 없어 **(VOA)**
- [2016.12.05] 이집트 오라뱅크, 평양지점 폐쇄 **(조선일보)**
- [2016.12.08] 스위스, 810만달러 대북식량지원 **(RFA)**
- [2016.12.08] 대북지원으로 북 식량 값 폭락 **(RFA)**
- [2016.12.09]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해 부족분 77% 미확보” **(VOA)**
- [2016.12.11] 中 “유엔 대북제재 이행... 北석탄 수입 중단” **(동아일보)**
- [2016.12.13] FAO, 북한 수해 지역 농업 피해복구에 50만 달러 지원 **(VOA)**
- [2016.12.14] 겨울만 되면 가중되는 북 ‘전력난’ **(RFA)**
- [2016.12.15] 북미 기독교 구호단체, 북한 수재민 구호품 지원 **(VOA)**
- [2016.12.16] 러시아, 지난 6년 국제 구호 중 10% 대북 지원 **(VOA)**
- [2016.12.17] 북 “200일 저투 성과 냈다” 자평 **(RFA)**
- [2016.12.20] 지난해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 30% 증가...상품 교역은 감소 **(VOA)**
- [2016.12.21] [심층취재] 유엔, 북한 산림 복구에 55만 달러 지원 **(VOA)**
- [2016.12.22] 리히텐슈타인 WFP 대북 사업에 10만 달러 지원...6년째 계속 **(VOA)**
- [2016.12.23] 국제사회, 올해 대북 지원 4천930만 달러...대부분 영양 지원 **(VOA)**